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담당자 : 박성진 주무관

연락처 : 055-211-4073

경남도, 수도권 기업에 ‘경남의 미래와 투자기회’ 알린다

- 20일, 서울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수도권 기업인 300여 명 초청
- 우주항공·방산·SMR 등 미래산업 투자기회와 맞춤형 지원제도 소개
- 탄탄한 산업생태계, 입지 경쟁력 등 경남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부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0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잠재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2026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9기 경남도의 미래 성장 전략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에 발맞춰,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산업 투자 기회를 수도권 기업에 알리고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은 우주항공, 방위산업, 첨단조선·해양,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관련 앵커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산업생태계가 형성돼 있어 기업의 신규 투자와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도 갖추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주요 산업과 투자입지를 소개하고, 기업의 투자 단계와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와 투자 인센티브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는 ▲경남의 미래산업 및 투자환경 소개 ▲주요 투자기업과의 투자협약(MOU) 체결 ▲경남 투자 우수기업 표창 ▲기업별 일대일 맞춤형 투자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대일 투자상담을 통해 기업별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투자 가능 부지와 지원제도를 연계해 설명회 이후에도 투자 검토 단계부터 실제 투자

완료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환경을 수도권 기업인들에게 직접 알리고, 기업의 새로운 투자기회를 경남으로 연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에는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경남에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유치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 사전등록은 10월 19일까지 경상남도 공식 누리집 (www.gyeongnam.go.kr)의 ‘민원참여 > 주요알림 > 2026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배너에 안내된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투자유치과 박성진 주무관(055-211-40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